

바라핀



웹진 <해안선> 접속 링크

바다



해안선

해안선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MAGAZINE

떠나볼까요? 흰 눈이 내리는
포근한 겨울날의 바다로



2023
Winter
-
Vol.56



겨울이라 쓰고 방어의 계절이라 부른다

그림 오레오



2023 Winter
KOMSA MAGAZINE

Vol.56

발행인
김준석 이사장

발행일
2023년 12월 22일(통권 56호, 비매품)

발행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27(아름동)

전화
044-330-2380

홈페이지
www.komsa.or.kr

기획·디자인·인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CONTENTS

뜻 웃음 바다

- 4 바다의 계절
- 6 어촌갈지도
보령 원산도&진창 어촌계
- 14 바다 옆 예술관
전현주 작가
- 18 여기가 뜨는 이유1
88생선구이
- 20 여기가 뜨는 이유2
바이더오
- 22 바다 장터
속초관광수산시장

안전 바다

- 26 베테랑을 만나다
인재개발실 박주용 차장 x
운영지원실 재무회계팀 이현승 팀장
- 30 해수호 토크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따사누리
- 32 마음을 전해요
땡-땡! 온기 가득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 34 현장에 가다
인천지사&인천운항관리센터
- 40 KOMSA 이슈1
KOMSA 미래세대 대상
커뮤니케이션 교육
- 44 KOMSA 이슈2
안전하고 믿음직한 수학여행 뱃길,
KOMSA 여객선 안심여행 서비스와 함께
- 48 뉴스
- 49 KOMSA 네트워크
- 50 이벤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SNS와 함께하세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교통안전 확보로 안전한 바다를 만들고, 고객의 행복을 지켜나갑니다. <해안선>에 게재된 내용 일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안선>에 게재된 글과 사진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람 끝이 잡니다.
바람 끝에 오른 파도만이
있는 힘껏 해변을 향해 밀려올 뿐입니다.

봄 바다의 따뜻함도, 여름 바다의 활기도,
가을 바다의 낭만도 없는
고요한 기운만이 감도는 겨울 바다.

고요함을 깨고
배 한 척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납니다.

다들 쉬어 간다는 흑한 겨울.
바람도, 파도도 결국 바다의 일이라는 걸
아는 어부가 개의치 않고
제 몫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저 바다로
제일 먼저 하루를 시작하러 가는 중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삶의 한가운데에서 치열하게
고기를 낚는 어부의 땀방울이
차디찬 겨울 바다에 한줄기 포근함을
가져다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물어 가는 한 해,
The year is coming to an 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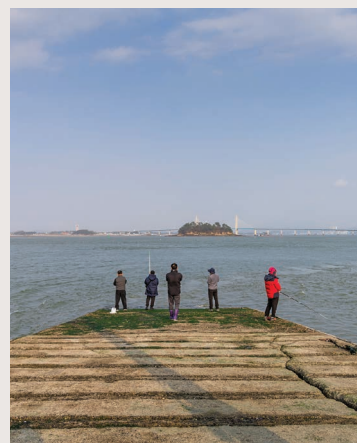
One day in Wonsan-do

어느 날 원산도에서

크든 작든 저마다의 바람을 품고 시작했을 올 한 해가 저물어간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아쉬움이 없는 한 해로 기억되길.
혹여 아쉬움이 남는다면 고개를 들어 우리 앞에 펼쳐진 풍경들을 바라보기를.
잔잔한 풍경들이 그런대로 괜찮은 한 해였다고, 고생했다고 위로를 건넬 테니까.
원산도에서 우연히 마주한 노을이 그러했듯.
글 최선주 / 사진 정우철



원산도는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되고 난 뒤 꼭 배를 타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섬으로 더 유명해졌다.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하기도, 캠핑하기도 좋아 많은 사람이 찾는다.



해저터널을 지나면 나오는 섬

충남 보령은 크고 작은 섬들이 많고, 수도권에서도 그리 멀지 않아 짧은 휴일에도 쉽게 다녀올 수 있어 여행 가기 좋은 곳이다. 연말, 가족끼리 연인끼리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접근성 좋은 보령의 섬을 찾아보자. 죽도, 외연도, 삽시도, 고대도 등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섬의 풍경들이 연말의 분위기를 더욱 운치 있게 해줄 것이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면, 주저 없이 원산도를 추천한다. 2021년, 원산도와 대천항을 잇는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되고 난 뒤 꼭 배를 타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섬으로 더 유명해졌기 때문이다.

사실 원산도로 떠날 마음을 먹은 뒤부터 가장 기대했던 게 보령해저터널이었다. 바다를 관통하는 터널이라니! 상상만으로도 설레는 기분이 들지 않는게 게다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해저터널이라고 하니 의미도 있고

기대를 잔뜩 품고 드디어 보령해저터널로 진입하는 순간! 생각했던 '아쿠아리움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차로 바닷속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했다. 보령해저터널 덕분에 관광객이 늘었으니 원산도 입장에서는 '기특한 녀석'이 아닐까.

초전항에서면 보이는 것들

가장 먼저 도착한 초전선착장. 초전선착장 앞에 나 있는 해안길이 마을, 바다와 어우러져 정겨운 모습을 자아낸다. 마을 분위기가 좋아서 해안길을 따라 쪽 걸어본다.

“저 멀리 보이는 게 안면도래.”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보니, 진짜 안면도가 보인다. 그뿐인가 태안 영목항과 원산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가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다. 예전에는 원산도에

낚시꾼들 뒤로 짙어진 낙조가
 원산도에서의 하루를
 더욱 운치 있게 만들어 준다.
 잔잔하고 평화로운 원산도의 저녁.



가려면 보령의 대천항과 오천항, 안면도의 영목항 등에서 배를 타야 했는데 원산안면대교가 개통되면서 차량으로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보령해저터널이 생기기 전부터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이다. 멀리 원산안면대교를 바라보며 길이 나오지 않는 마을 끝까지 갔다가 다시 초전선착장으로 왔다. 요기를 해 볼까 해서 선착장 주변에 있는 몇 개의 식당들을 둘러봤다. 그중 '초전부녀회 맛집'이라는 식당은 마을 부녀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라고 문을 일찍 닫는 탓에 맛을 볼 수는 없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돌리던 찰나 지나가던 어르신이 한마디 보탠다. "여기 파전이랑 국수가 맛 있어요 다음에는 조금 더 일찍 와서 드셔보세요!" 어쩐지, 외관부터가 맛집 향기가 나더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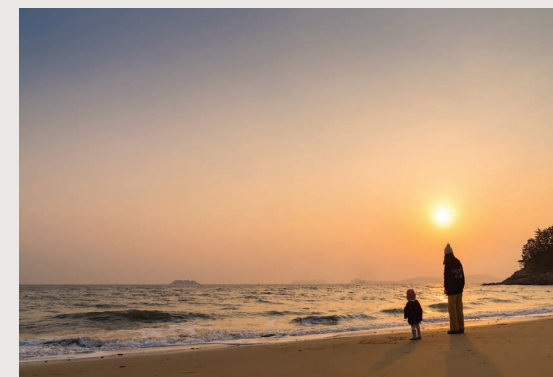
노을이 드리운 한적한 바닷가

"원산도는 또 어디를 가야 좋을까요?" 어르신께 슬쩍 여쭙어보니 망설임 없는 대답이 돌아왔다. "저기 오봉산해수욕장이랑 캠핑장 가봐요. 좋아." 원산도 여행길에 오를 때 오봉산해수욕장이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캠핑장이라... 알지 못했던 사실에 어르신과 몇 마디 더 나눠보니 원산도는 낙조가 아름답고, 접근성도 좋아 차박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보령해저터널이 생기고 난 후 캠핑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고.

한번 들릴까 싶어 원산도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사창캠핑장으로 향했다. 아는 사람들은 사창캠핑장이라고 말해도 알지만, 초행길이라면 내비게이션에 사창해수욕장이영장으로 검색해야 한다.

초전선착장에서 멀지 않아 금세 도착했다. 3팀이 바다가 바로 보이는 쪽에 텐트를 치고 여유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잠깐 둘러나 보고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바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다. '아, 여기는 무조건 캠핑을 해야겠구나!' 낙조와 적당히 몰아치는 파도, 백사장의 풍경이 발목을 붙잡았기 때문.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낙조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우연이었다. 같은 마음이었는지 조용했던 바다에 드리운 찰나의 낙조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고 돌아갔다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사창해수욕장 낙조의 여운을 머금고 계획했던 오봉산해수욕장으로 향해본다. 고운 모래를 밟으며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는 곳까지 걸었다. 그 사이 낚시꾼들 뒤로 낙조가 더 짙어졌다. 평화로운 풍경이 좋아서 해가 모습을 감출 때까지 바라보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한다. 원산도에서 담아온 잔잔한 풍경들 덕분에 가는 한 해가 그렇게 아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며.



원산도 어촌계의 미래



진창 어촌계

원산도에는 총 3개의 어촌계가 존재한다. 1리 선진 어촌계, 2리 점취 어촌계, 3리 진창 어촌계다. 어촌계원 122명으로 이루어진 진창 어촌계는 3개 어촌계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봄, 가을에는 바지락을 많이 캐고 4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는 해삼을 주로 한다. 대부분의 어촌계가 그러하듯이 진창 어촌계원의 평균 연령은 70대 초반으로, 낮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2022년 강명식 어촌계장이 부임 후 어촌계 대위원들의 나이를 60대 이하로 낮췄다.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을 대신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진창 어촌계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다. 실제로 바지락 캐기 체험장이나 홍합 양식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느라 진창 어촌계원들은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기존의 어촌이 1차 산업에 머물렀다면, 6차 산업 쪽으로 바꾸기 위해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다. 부가 가치를 높여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진창 어촌계의 미래가 기대된다.

Interview



Q1.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산도가 고향인데, 고등학교 때 안양으로 가서 부천에 터를 잡고 살다가, 2016년에 원산도에 돌아왔어요. 홀 어머니가 원산도에 계셔서 모실 겸 오게 되었습니다. 주업으로 낚싯배를 운영하고 있어요.

Q2. 원산도 자랑 부탁드립니다.

일단 충청남도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되고 나서 더 발전하고 있는 곳이지. 자연에 가까운 섬이라기보다 도시와 자연 그 중간의 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접근성이 좋아서 금, 토, 일에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천연 모래로 된 오봉산해수욕장, 낙조가 유명하고요. 최근에는 캠핑하러 많이 오십니다.

Q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한 말씀 해주세요.

검사원들이 일단 친절합니다. 검사하러 오면서 어민들에게 홍보할 것도 잘 알려주고요. 어민들이 피해보지 않는 방법을 많이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참 고마워요. 할 수만 있다면 상을 주고 싶어요.



Q1. 자기소개해 주세요.

원산도에서 식당 면포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편찮으셔서 아내와 함께 봉양하러 왔다가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들어온 지 벌써 4년이 조금 넘었네요. 진창 어촌계에서는 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2. 원산도 자랑 부탁드립니다.

아내와 연애 시절부터 휴가 때마다 원산도에 자주 왔어요. 다닌 지는 15년이 넘은 것 같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골 할머니 집에 왔다가는 느낌처럼 좋아요. 어르신들도 정말 잘 챙겨주시고요. 지내면 지낼수록 정겨운 동네입니다.

Q3. 관광객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오시는 건 정말 좋은데, 캠핑하거나 여행하고 떠났을 때 쓰레기가 정말 많이 보여요. 남아 있는 저희가 그걸 다 치워야 하는 상황이지요. 원산도를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해산물 채취도 멈춰주세요. 어민들의 생계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어촌계, 함께 만들어가요. 🌍

우연히 제주,



우리의 인생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삶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갈지라도 당황하지 말자.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흘러가는 방향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언제 되는 게 분명 있을 테니.
전현주 작가처럼 말이다.
계획하지 않았던 제주살이에
정신없는 날들이었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자신만의 이정표를 만들어 나갔다.
여전히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지만,
그녀는 그 과정에서 얻는 것들을
결코 허투루 대하지 않는다.
글 최선주 / 사진 정우철

짙어진 삶의 영감

주주스튜디오 전현주 작가



디자이너, 제주의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다

우리나라 최남단, 제주 대정읍. 그 안의 조용한 마을 하모리와 잘 어울리는 붉은 벽돌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건물의 정체는 전현주 작가가 운영하는 주주스튜디오다. 평소 툭툭 튀는 색깔과 귀여운 일상 그림으로 사랑받고 있는 전현주 작가가 제주에 와서 애정을 담아 문을 연 일러스트 쇼룸이자 작업실이자 클래스 공간이다. 화장품 브랜드 그래픽 디자이너는 전현주 작가가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기 전 갖고 있던 직업이었다. 약 10년을 활동했던 디자이너로서의 일은 나름 재미도, 보람도 있었다. 하지만 잦은 밤샘으로 몸이 힘들었고, 그녀는 결국 퇴사를 결심했다.

“이직하고 회사를 1년 더 다녔어요. 마지막 회사를 끝으로 직장 생활도 끝냈죠. 그리고 바로 사업자등록 후 프리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만든 이름이 주주스튜디오였는데, 이렇게 계속 사용하고 있네요.”

호기롭게 시작했던 프리랜서 활동.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변수에 전현주 작가 역시 손쓸 방법이 없었다. ‘집콕 생활’이 이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힘들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코로나19를 온몸으로 마주하고 있었던 때,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다시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남편이 제주로 회사를 옮기게 되면서 준비할 틈도 없이 이사를 결정했어요. 보통 제주에서 제주살이를 하는 이유를 물으면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라든지, 도시를 벗어나 자연에서 살고 싶다는 등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갑자기 왔어요.”



작가가 한 눈에 반한 문방구는 지금의 주주스튜디오가 되었다.

운명처럼 만난 작은 문방구

“이사 온 날이 제주에 처음 입도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이때도 코로나19가 심해서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했어요. 밤샘 작업을 하다가, 해 뜨면 잠에 드는 불규칙한 생활을 이어갔죠. 너무 지쳐서 이렇게는 안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전현주 작가는 작업실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낮은 구옥, 작은 앞마당이 있는 공간을 상상하며 열심히 발품을 팔았지만, 작업실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실망하며 마지막 부동산을 나가던 중 지금의 주주스튜디오 공간을 만나게 되었다.

“3층짜리 빨간 벽돌로 된 건물이었었는데, 빛바랜 종이에 크게 ‘임대’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샘문구슈퍼’라는 간판이 있었어요. 여기서 싶어 알아보니 15년 동안 문구점으로 운영되던 곳이더군요.” 90년대 문구류와 지류함, 종이 냄새까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공간이 맘에 들었던 전현주 작가는 매료되어 계약했고, 기존의 공간을 크게 바꾸지 않는 선에서 한 땀 한 땀 인테리어를 하고 스튜디오 문을 열었다.

제주의 노을처럼, 선명해진 꿈

주주스튜디오 근처에는 국제학교가 있다. 이런 지역적 특색이 전현주 작가에게 또 새로운 경험을 선물해 주었다.

“저는 누구를 가르쳐 본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클래스 문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신기했죠.”

7살 친구와 함께 클래스를 처음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상상력을 그림으로 풀어내는 과정을 보며 얻는 게 많다고. 홈페이지에 아이들의 작품을 ‘Little Artist’라는 이름으로 전시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아이들의 그림부터 함께 지내는 고양이 두 마리, 일상에서 마주한 재미난 에피소드까지. 자연스러운 것에서 영감을 얻어 그림을 그리고 색을 입힌다. 색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아는 그녀는 색감을 유독 신경 쓰는 편이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툭툭 튀는 색감이 돋보이고 사랑스럽기까지 하다. 그런 색감은 그녀의 그림뿐만 아니라 그녀가 만드는 우드 오브제, 굿즈 등에서도 묻어난다.

“어릴 적 제가 일상에서 받은 위로를 사람들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일상을 그림에 담아내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갈 생각입니다. 제 그림이 마음에 편안함을 가져다주면 좋겠네요.” 벌써 1년이다. 계획하지 않았던 제주에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운영한 게. 전현주 작가는 지금 스튜디오를 함께할 팀원들도 만났고, 제주에만 국한되지 않는 아트 브랜드로 활동을 넓혀가겠다는 목표도 정했다. 하고 싶은 것만을 하는 것 보다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가르쳐준 제주살이가 없었다면, 가능했던 일들이었을까. 최남단, 작은 마을에서 품은 작가의 꿈이 어쩐지 더 질게 다가온다. 🌿

WHEN LIFE GIVES YOU ORANGES



STAY WILD



공간 곳곳에 손길이 닿아 서일까. 작가는 주주스튜디오의 모든 공간을 아낀다.



속초에 왔으면 생선구이는 먹어야지!

88생선구이

고기만 숯불에 구워 먹는다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은 이제 편견이었다는 걸 깨닫기를.
속초에 가면 신선한 생선을 숯불에 구워주는 집이 있다.
메뉴는 오직 생선구이 하나.
하지만 열 메뉴 부럽지 않은 맛에 아쉬움 따위는 남지 않는다.
게다가 눈앞의 정겨운 바다 풍경은 이 집에서만 얻을 수 있는 덤이다.
글 최선주 / 사진 정우철

갯배선착장 인근 생선구이

속초에는 유명한 것들이 많다. 아바이마을, 아바이순대, 속초관광수산시장, 물 맑은 바닷가 등...
그 유명한 라인업에 88생선구이도 빼놓을 수 없다.
아바이마을로 가는 갯배선착장에 즐비한 음식점 중에서도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맛집 중의 맛집이니까.
외관은 여느 노포와 큰 차이가 없다. SNS에서 유행하는 감성은 전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을 타고 연일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고. 인기에 힘입어 바로 옆 공간에 가게 확장 공사가 한창이다. 팁을 주자면 평일 점심이나, 주말에는 대기를 해야 하니 시간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것. 봄비는 시간을 피하면 대기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설령 대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낭패라고 생각하지 말자. 바로 앞에서 바다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니까. 단, 부둣가라서 가게 전용 주차 공간은 따로 없다.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이 생선들을 한꺼번에?

메뉴는 생선구이모듬정식 단 하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워서 나오는 생선구이가 아니다. 주문과 동시에 숯불을 넣고 손질된 신선한 생선을 숯불 위에 올려 주는 게 이 집 생선구이의 포인트. 기름기는 짝 뺀 담백하고 비린내 없는 생선구이를 맛볼 수 있다. 생선을 잘 굽지 못한다고 망설일 필요도 없다. 노련미 물씬한 가게의 전문가들이 직접 구워주니까. 생선구이가 잘 익으면 접시에 올려 주니 열심히 먹기만 하면 끝이다. 함께 나오는 밑반찬도 맛있어 밥 한 공기는 금세 비운다. 후기를 찾아보면 한 번 이상 방문했다는 n차 방문객들도 많다. 맛 기행 프로그램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나와서 인기가 올라갔지만, 사실 방송을 타기 전부터 현지인들이 인정하는 맛집이었다고. 여기서 무슨 생선들이 나오는지 궁금할 사람들을 위해 소개한다. 생선구이모듬정식을 주문하면 나오는 생선은 고등어, 꽂치, 오징어, 가자미, 메로, 황열갱이, 도루묵, 삼치, 청어다. 보통의 생선구이 집에서는 2가지 정도의 생선만 나와도 '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무려 9가지를 구워준다. 취향대로 생선구이를 맛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다. 가족 단위 여행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어린이들도 거부감 없이 생선구이를 먹는 모습을 보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맛집이라는 게 실감이 난다. 🌐

88생선구이

- 📍 강원 속초시 중앙부두길 71
- 🕒 매일 08:30~20:15
브레이크 타임 15:00~16:30
라스트 오더 점심 14:30/저녁 19:30
- ☎ 033-633-8892

인근 가볼 만한 곳

아바이마을(강원 속초시 청호로 122)





어디를 봐도 오션뷰 그래서 알라뷰

바이더오

카페든 숙소든 맛집이든 일단 뷰가 좋으면
제아무리 MBTI 'I' 성향이라도 없던 감성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법.
보령에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바다가 보이는 '뷰 맛집' 카페가 있다.
정체는 카페 바이더오! 아, 벌써 바이저든 cr, 촉촉한 감성에...★
글 최선주 / 사진 정우철

카페야? 미술관이야? 정체는 뭐야?

보령 원산도로 가면 유독 눈에 띄는 공간이 있다.
가까이 갈수록 더 선명하게 보이는 옥상의 'O'자 조형물이
있는 카페, 바이더오다. 모르고 갔다면 미술관이라고
착각해도 어색함이 없는 외관에 "오~" 소리가 절로 나온다.
카페 앞 넓은 정원은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여행객들의
놀이터로 손색이 없다. 외관부터 놀라운데 안으로 들어가면
더 놀라게 되니 긴장하시라. '1층 cafe 원, 2층 cafe 산,
3층 office, 4층 cafe 도'로 이루어진 총 4층짜리 넓은 내부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니까. 게다가 전면 통유리 창으로 되어
있어서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커피 한잔하며
오션뷰 감상 SSAP 가능!



커피, 디저트 일단 한번 잡춰봐!

바이더오의 시그니처 음료는 브라운치즈 아인슈페너. 콜드브루
커피에 산처럼 쌓아 올린 고소한 브라운치즈가 색다른 맛을
선사한다. 커피가 반 정도 남았을 때 모두 섞어서 먹으면 단짠의
조화를 느낄 수 있다.

커피만으로 심심하다면, 디저트 오 카스텔라를 곁들여 보자.
맛집 소개 프로그램 <토요일은 밥이 좋아>에 소개될 정도로
맛있고, 2023년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카페/디저트 부분에서
'충남 보령시 2년 연속 우수'로 선정될 만큼 공식적으로도
인정받았기 때문.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하루 한정 수량이 다 나가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아니 이렇게까지 맛있다는데 마시고,
먹어봐야지! 안 그래요?



바이더오

-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5길 89-23
- 🅐 주차 가능(주차 공간 엄청 넓음)
- 🕒 매일 10:00~21:00
- 🕒 라스트 오더 20:30
- ☎ 0507-1426-5554

층마다 다른 분위기에 Kijul~

1층은 디저트와 카페를 주문하는 공간, 2층은 라운지 콘셉트의 조금 더 아늑한 공간, 3층은 오피스 공간이지만 밖에서 마실 수
있도록 테이블과 좌석을 마련해 뒀다. 4층은 바이더오를 유명하게 만든 'O'자 조형물 안 그네가 있는 루프톱! 일몰이 기가
막히기로 유명한 서해담게 일몰 시각에 오면 기가 막힌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다. 일몰 때가 아니라도 워낙에 경치가 좋기
때문에 일단 왔다면 꼭 사진을 찍어보자. 주말에는 사진을 찍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릴 정도다. 📷



속초관광수산물시장

동해를 담고,
정을 담아 가세요



“한 번 보고 가세요!”, “오늘 생선 물 좋아요!”
스쳐보고 가는 손님들의 시선을 놓지 않고 외친다.
시끌벅적한 소리와 비릿한 냄새가 뒤섞인 풍경.
시장 상인들 그리고 어민들의 시간과 마음이 담겨서일까.
우렁찬 목소리에 한 번 더 서성이게 되는 속초관광수산물시장이다.

글 최선주 / 사진 정우철



속초관광수산물시장은?

관광업과 수산업이 발달한 속초에 자리한 전통시장이다. 청과와 순대, 닭강정, 회, 수산물 등이 주로 거래된다. 품목에 따라 전문화된 골목들과 대형 주차장이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강원 속초시 중앙로147번길 12

모처럼 시장에 가 보면
시끌벅적한 소리와
비릿비릿한 내음새
비로소 살아 있는 사람들의
냄새와 소리들
별로 살 물건 없는 날도
그 소리와 냄새 좋아
시장길 기웃댄다
-나태주 <시장길> 중에서-





집에 사 가지고 가보았자 먹을 입도 없는데
무엇을 이런 거 사왔느냐 집사람 핀잔하고 외면할지 몰라도 어려서
외할머니 밥상에서 수저에 얹어주시던 고등어 생각이 나서 문득 고등어 산다
-나태주 <고등어 산다> 중에서-



속초의 역사를 품은 시장이올시다

속초관광수산시장은 1953년에 형성되었다고 전해진다. 6·25 전쟁 이후 속초가 수복되자마자 형성되었다고 하니 속초의 역사를 품고 흘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가 1959년, 화재로 49개의 점포가 전소되기도 했고, 3구시장에서 중앙시장으로 이름이 바뀌기도 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중앙동 사거리와 주변 도로가 확장되면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수산물, 건어물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명태가 많이 나던 1960~1970년대에는 마른명태 시장으로, 오징어가 한창 잘 잡히던 1980~1990년대에는 마른오징어 시장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오래된 재래시장이었던 곳의 모습이 크게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주식회사 건영이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점포를 조성해 분양했고, 분양을 받은 상인들은 입주해 장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2006년, 지금의 속초관광수산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시장활성화사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2011년에는 '여행하기 좋은 전통시장'에 선정되는 영광을 얻기도 했다. 그 영광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속초관광수산시장을 찾고 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시장 구경

속초관광수산시장에 처음 도착하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바로 주차장. 시장하면 보통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 마련인데, 주차장이 정말 넓다. 이렇게 넓은 주차 공간을 마련해 줬으니, 이용객들은 편리하게 두 손 무겁게, 입은 바쁘게, 마음은 가볍게 시장 구경에 나서기만 하면 된다.

본격적인 시장 구경에 나서기 전에는 길이 헛갈릴 수도 있으니, 초입에 마련된 시장 안내도를 한 번 살펴볼 것. 잡화, 건어물을 파는 희망로, 떡, 의류, 생활용품을 파는 우정로, 닭강정 등 각종 튀김류를 파는 닭강정·튀김골목, 순대골목(순대타운) 등 다양한 골목이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어물전(어시장골목)과 속초종합중앙시장이다. 이곳에서는 각종 생선류와 속초관광수산시장의 뿌리와 같은 건어물이 준비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건어물도 생선도 다 좋아요

어물전의 풍경이 유독 정겹다.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할머니 상인들이 은쟁반에 제철 생선을 올려두고 판매한다. 알도루묵부터 양미리, 홍게, 대방어까지 갓 잡은 수산물이 도시에서 온 여행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러다가 배가 고파질 때쯤이면 속초종합중앙시장 지하에 있는 수산물회센터로 가서 생선 요리를 즐겨보기를. 바로 잡아서 손질한 후 요리해 내어 주기 때문에 맛은 보장된다. 대방어회, 산오징어회, 매운탕, 오징어순대 등 종류도 다양하다. 동명항 해안 1.6km 밖 25m 심해에서 청정해수를 취수해 1.9km 관로를 통해 수산물회센터에 공급하기 때문에 신선함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동해안 싱싱한 수산물이 모이는 집결지가 바로 여기다.

"아유, 또 와요~! 내가 잘해 줄게~!" 봉지에 물건을 듬뿍 담아 주곤 호탕한 웃음을 건네는 건어물전 아주머니의 웃음이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다음 계절에도 속초를 찾았다면 아주머니의 말대로 또 속초관광수산시장에 와야겠다고 생각하며 시장 구경을 마쳤다. 

KOMSA의 미래를 설계하라!

어느 조직이든 더욱 빠르게,
보다 멀리 나아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직의 존재 이유이자 본분이기도 하다.
KOMSA의 행정직은 기획, 재무, 인사, 평가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주요 정책과 제도의
시행·운영 업무를 도맡는다.
이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경영 전략이 달라지므로 매 순간 정확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KOMSA의 내일을
설계하는 행정직 베테랑 2인을 만나본다.
글 김주희 / 사진 고인순

최고·최선·최적의 선택과 집중

인재개발실 박주용 차장 × 운영지원실 재무회계팀 이현승 팀장



Q. KOMSA에 입사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박주용 차장 2011년 입사해서 어느덧 13년 차입니다. 군 전역 전에 로스쿨 입학이나 공공기관 입사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공공기관의 직업 안정성과 청렴준수 업무, 규정에 입각한 체계적인 경영관리에 매력을 느끼고 KOMSA에 입사했습니다.

이현승 팀장 몇 년간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니 KOMSA가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회사가 점차 진화하고 발전하는 여정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Q. KOMSA의 행정직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이현승 팀장 KOMSA의 행정직은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기획하며 직제 및 임직원 정원 등을 관리하는 기획업무, 인건비·경상비·사업비 등 공단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예산업무를 합니다. 또한 직원의 채용·전보·승진·평가 급여를 관리하는 인사업무, 자금의 출납·세무신고·회계결산 등을 수행하는 회계업무 등 경영행정 전반에 관한 일을 담당합니다.

박주용 차장 행정직은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검사·운항관리직 등 타 직렬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기회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업무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따라 개인과 회사의 성장을 일치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반면 사무실에서 주로 업무를 하다 보니 검사 및 운항관리현장 등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직렬의 요구사항을 접하면서 갈등 관리와 협의점을 찾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Q. 출근부터 퇴근까지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박주용 차장 루틴이 정해진 업무는 아니지만, 인사·복무 및 노무 관련 정책 프로젝트성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통 최소 2~3개월이 소요되곤 하죠. 또한 근로감독 및 감사요구에 대응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이현승 팀장 아침에 전일 자금시제부터 확인한 후, 당일 금전출납을 위해 지출결의서를 최종 결재하며 출납 승인을 합니다. 처리된 회계 전표의 계정과목을 수시로 체크하고요. 출납이 마감되면 공단의 보유 자금을 확인하죠. 이 밖에도 부가가치세·원천세·법인세 신고 자료 최종 검토, 법인카드 사용내역 검토, 분기별 회계 정산, 가결산, 연말결산 등의 업무도 시기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Q. 그간 많은 업무를 하셨을 텐데요. 기억에 남는 업무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 최근 집중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함께 소개해주세요.

박주용 차장 지난 2019년 기존 선박안전 기술공단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할 당시 설립추진단 활동을 했습니다. 회사의 또 다른 미래를 여는 과정에 참여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최근에는 유연근무 활성화 등 근무유연화에 따른 KOMSA 적합형 복무관리 표준안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이현승 팀장 처음 입사했을 당시 신규 회계ERP가 잘 활용되지 않고 있었어요.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4개월 만에 오픈한 결과, 2016년부터는 전사적으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로버트 엘리엇의 명언을 동기 부여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더라도 이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성취감을 얻고자 합니다.

인재개발실 박주용 차장

KOMSA의 행정직은 기획, 재무, 인사, 평가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주요 정책과 제도의 시행·운영 업무를 도맡는다.

신규 회계ERP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무회계팀은 연말이 다가오면 회계마감 후 결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이를 위한 사전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1년간의 경영활동을 마무리 짓는다는 긴장감 속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Q. 업무 중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박주용 차장 업무를 할 때는 배움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분야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공부하면 어느 순간 스스로가 한층 더 성장한 것을 깨닫곤 하죠.

이현승 팀장 재무회계팀이 받는 문의의 90% 이상이 금전적인 문제나 잘못된 회계처리의 수습과 해결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 방안을 고민해 문제를 해결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사업부서나 지사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오는데요. 우리 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을 느끼죠.

Q.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와 꿈을 말씀해주세요.

이현승 팀장 직원 중 어느 누군가가 회계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정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는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큰 목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나이에 비해 자녀들이 많이 어려서 아이들에게 젊은 아빠가 되는 게 바람인데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저 또한 아프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소박한(?) 꿈입니다.

박주용 차장 어렸을 때 꿈이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꿈과 목표를 곱씹어 보곤 하는데요. 향후 5년 이내 비행기 조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KOMSA 직원 최초의 파일럿이 되지 않을까요? 인사업무를 하는 만큼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사내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



‘1원까지 찾아내서 맞춘다’라는 업무 신조 아래 회계업무를 수행합니다. 큰 단위보다 작은 단위의 틀린 숫자를 찾아내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인데요. KOMSA 업무 중 유일하게 매일 마감이 존재하는 업무인만큼 단돈 1원도 틀리지 않고 완벽한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운영지원실 재무회계팀 이현승 팀장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지역 사회를 사랑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들이 따사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세종시민의 손으로 직접 만든 따사누리의 이야기다.
글 편집실 / 자료 세종시청 기업지원과

Q. 따사누리가 뭔가요?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려주세요!



따사누리는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세종시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이자 플랫폼으로 보면 됩니다. 2022년 7월 1일 정식으로 오픈했어요. '따사누리'라는 이름은 시민 공모를 통해 지어졌어요. 한글 '따사로움'과 '누리'의 합성어로, 사회적경제가 서로를 잇고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그런데, 사회적경제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사회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제활동입니다.

Q. 따사누리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다양한 기획전과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또한 시민들과 공공기관이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요.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수익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해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 지역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에게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세종시청 기업지원과는 따사누리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하나요?

신규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따사누리 가입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죠. 오프라인 및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공공기관과 지역주민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행사 등을 진행합니다. 따사누리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면 따사누리와 관련된 최신 정보나 소식들을 빠르게 접할 수 있어요.



Q. 따사누리 홈페이지를 보니 먹거리, 문구, 생활용품 등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다양하더라고요. 이런 상품 설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따사누리 플랫폼에 상품 카테고리를 이용해 상품 정보를 등록합니다. 세종시에서 직접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업들이 함께 하기에 상품의 범위가 정말 다양합니다.

Q. 따사누리 가입 조건이 궁금한데요.

세종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안내에 대한 문의사항은 세종시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사회적경제팀 (070-4400-0084)으로 연락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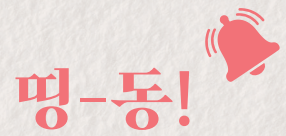


따사누리에서는 시기마다 다양한 기획전을 진행한다. 특히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특급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특별 기획전을 마련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따사누리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www.dsnnuri.com @dsnnuri_official

Q. 따사누리를 모르는 독자들에게 따사누리를 홍보해 주세요.

지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늘어난다면, 기업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으로 경제활동 인구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와 지역 예술가의 활동 증진으로 사회의 양극화 및 돌봄·보건·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요. 새로운 복지서비스 수요에 따른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셈이죠. 따사누리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핑-동! 온기 가득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핑-동! <해안선> 앞으로 깜짝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 해 동안 고마웠던 동료 및 선후배에게 KOMSA 가족들이 마음을 전해 온 것인데요.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곁에서 응원해 주고 도움을 준 동료들이 있어 KOMSA의 2023년은 꽤 성공적인 것 같네요! 마음 따뜻한 메시지를 공개합니다. 이 페이지를 읽고 가슴 한편에서 뭉클함이 느껴졌다면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료가 있다면 바로 메시지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동료 역시 환한 미소로 답을 해올 것입니다.

정리 편집실



To. 부산지사 박종섭 차장님께

끝날 것 같지 않았던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니다. 이맘때는 소중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부산지사에 계신 박종섭 차장님과 함께한 시간이 참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차장님! 따뜻하고 희망찬 일들만 가득하시고, 유종의 미 거두시는 12월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From. 사천지사 황준식 대리

To. 김병욱 과장님, 남궁호 대리님!

중부지사에서 구조도면 승인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올해, 지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해서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되었어요.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같이 일하고 있는 김병욱 과장님과 남궁호 대리님께서 흔쾌히 제 업무를 맡아 주셔서 마음 편안히 몸조리 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이상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자리를 비우게 되는 쪽 역시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의 짐을 같이 짊어져 준 두 분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신 지사장님 이하 우리 지사 식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From. 중부지사 정계웅 차장

To. 모두에게 감사를!

입사 후, 아무것도 모른 채로 덩그러니 있는 절 이해해 주시고, 바쁘신 와중에도 도움을 주신 전 지사 실무원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혼자라 어렵고 힘들 거라고 위로해 주시고 도움 주신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어려워하는 저를 위해 힘써주신 우리 당진지사와 운영지원실 조은숙 대리님, 최영환 대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

From. 당진지사 안소윤 주임



To. 서울출장소 파이팅!!!

안녕하세요. 장애를 갖고 시작하는 저의 첫 출발이 KOMSA라서 정말 영광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KOMSA에서 좋은분들과 함께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해요.

서울출장소는 다른 지사에 비해 적은 인원이지만, 그만큼 서로를 더 배려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서울출장소 식구들의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응원에 감동할 때가 많거든요. 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번성하는 서울출장소가 되기를 바랄게요. 파이팅!

From. 서울출장소 김라경 주임

To. 해양환경실~! 힘내세요!

지난 11월, 역대급 출장과 업무 일정에 같은 실이어도 얼굴 보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해양환경실장님과 실원 여러분, 정말 노고 많으셨어요! 바쁘지만 우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힘내자고요! 연말에는 따뜻한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회사는 겨울이 되면 발이 너무 시리잖아요.ㅠㅠ)

From. 해양환경실 박정은 차장

To. 따뜻한 정지윤 과장님 고마워요!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시기에 목포에서 태안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했어요. 일가친척이 함께 사는 전라도를 벗어나 살아본 적이 없었던 우리 가족이었기에, 어린아이 둘과 함께하는 낯선 곳에서 생활은 녹록지 않더라고요. 급할 때 도움을 구할 사람이 가까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태안지사 정지윤 과장님이 새침데기 같은 첫인상과는 다르게 너무 따스한 모습으로 우리 가족을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보여주시 감사한 마음 평생 간직할게요. 저도 과장님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Happy new year!^^

From. 사천지사 김승현 부장





인천지사



이번에는 수도권이다! 수도권 유일의 지사, 인천지사

인천지사에는 공단의 모든 직렬이 근무하고 있다. '사공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오산. 다양한 직군이 함께 일하는 만큼 기쁜 일은 다 함께 즐거워하고, 어려운 일은 다 같이 도우며 인천지사의 배는 순항 중이기 때문이다.
더 쾌적해진 근무 환경에서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인천지사의 문을 두드렸다.

글 최선주 / 사진 조병우, 정우철

한마음으로

인천 중구 서해대로179번길 57. KOMSA 인천지사과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가 있는 곳이다.

“사무동 1층에 지사 사무실이 입주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환경도 쾌적해졌고, 별도의 샤워실, 탈의실이 마련되어 모든 직원들, 특히 검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검사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좋아진 환경 덕분일까. 고된 업무로 힘들 법도 한데 인천지사 구성원들의 단결력은 최고를 자랑한다. “인천지사 안에는 서울출장소, 인천운항관리센터,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이렇게 총 3개의 조직이 있어요. 행정직, 검사직, 운항관리직, 연구직, 실무직, 계약직 등 공단의 모든 직군이 어우러져 있죠.” 군부대로 치면 가장 많은 예하 부대를 거느리고 있는 지사라 어려운 일은 도와가며, 기쁜 일은 함께 나누며 화합을 다지고 있다. 지사 구성원 모두 조직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사는 철저한 선박검사를 기반으로 인천권 스마트 선박 안전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원격검사실에서 총 35건의 디젤 엔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것도 그 노력 중 하나다. 또한, 기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엔진업체까지 왕복 5~6시간 소요되던 출장시간이 해결되었다. 어떻게 하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한 결과, 개선점을 찾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지사 식구들과 함께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았어요. 그 결과 도선선 핸드레일, 유도선 선령 연장검사 항목에 대한 개선을 이루어 냈죠.” 다양한 기관 및 민원인과 소통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오는 피로도 있지만 인천지사 직원들은 웃음을 잃지 않는다. 서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웃게 된다고. ‘힘들 때 웃는 자가 일류다’라는 말이 있다. 일을 하다 보면 분명 힘든 상황은 또 찾아올 테지만 그 안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는 인천지사야말로 일류임이 분명하다.

웃자!

KOMSA 인천지사 Award

자체 설문을 통해 선정된 인천지사 분위기 메이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GIFT 핫팩, 컵, 주전부리



동료, 고객들에게 따뜻한 직원은?

그가 가진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유관기관 등 고객 및 직원과 관계가 돈독하다. 어떤 상황이든 앞장서서 소통하는 해결사!



추운 날, 따뜻한 차 한잔 같은 엔도르핀 직원은?

MZ세대 대상 교육에서 MVP를 차지하며 인천지사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리고 온 MZ 그 자체. 지사의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인싸!



맛집에 진심인 직원은?

인천 토박이. 즉 인천의 맛집은 모두 꿰뚫고 있는 재야의 실력자. 지사 직원들은 그녀가 추천하는 곱창 맛집 가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인 천 지 사

현장에 가다

김포 아라마린센터 선박
검사 현장에 왔습니다.
오늘 검사를 진행할 요트를
둘러보는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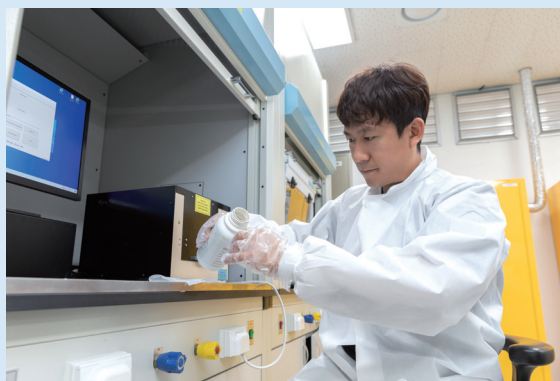
인천지사 검사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검사에
진심이랍니다.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원격검사실에서 원격검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경기해양레저 인력양성센터에서
설비 검사 시범을 보이는 중입니다.
교육생들이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사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모습이
너무 멋있네요!!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에서
유체성능분석 중!



인천운항
관리센터



인천운항관리센터와 함께 오늘도 안전하세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과 중에도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명 하나.
바다의 안전! 인천운항관리센터 운항관리자들은 혹한의 추위에도 안전 하나만을 위해 새벽을 깨운다.

서해5도, 그래서 더 꼼꼼하게!

추위에 절로 몸을 움크리게 되는 이른 아침, 인천운항관리센터 운항관리자들은 움크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 배가 출항하기 전 안전점검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운항관리센터가 관리하는 여객선 중에는 서해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이 있어, 안전점검에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다.

“서해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인근 해역을 말합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된 특수한 지역이기에 지방해양수산청, 해경, 해군, 시군청 등과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갖추고 더욱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을 관할하는 만큼 인천운항관리센터 운항관리자들의 책임감 역시 남다르다. 어두컴컴한 새벽 5시 30분부터 출근해 밤 9시 30분까지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고 늦게 마무리한다.

안전, 안전, 안전!

여객선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 인천운항관리센터 운항관리자들이 갖춘 덕목 중 하나다. 사명감이 없었다면, 하루하루가 늘 고된 날들의 연속일 것이다. 이들의 사명감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비상훈련경진대회에서 빛을 발했다. “전국 최초로 ‘비상훈련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총 9개 여객선 선원이 참여해 화재진압 전술, 인명구조 등 비상대응 역량을 평가받았죠.”

선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의식 제고에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많아 인천운항관리센터 운항관리자들은 누구보다도 뿌듯했다. 해양안전교육 역시 그 일환이다.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바다학교 대상 해양안전교육을 진행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안전교육 및 비상훈련체험 등을 진행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서 뿌듯했습니다.” 가끔은 여객선 운항과 관련해 관계자들의 항의로 힘들기도 하지만 유연하게 대처하고 소통하는 것 또한 그들의 일하기에 운항관리자들은 지금까지처럼 묵묵히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

KOMSA 인천운항관리센터 Award

자체 설문을 통해 선정된 인천운항관리센터 분위기 메이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GIFT 핫팩, 컵, 주전부리

동료, 고객들에게 따뜻한 직원은?

센터 최고의 공감왕. 민원인들의 불편에 공감하고, 눈높이에 맞추어 친절하게 설명한다.



추운 날, 따뜻한 차 한잔 같은 엔도르핀 직원은?

센터 최고의 브레인. 각종 지식이 풍부해 이야기거리가 많고, 분위기와 대화를 주도 한다.



맛집에 관심인 직원은?

센터의 분위기 메이커이자, 센터 최고의 맛·잘·알! 직원들이 여행 및 데이트를 할 때 항상 맛집을 문의한다.



인천운항관리센터

현장에 가다

본격적인 운항관리에 나서기 전에 숙지할 사항을 이야기 중입니다!

기계실과 통신실을 넘나들며 안전점검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조타실에서 선장님 및 기관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조심하세요!” 유연한 대화법 역시 운항관리자들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입니다!



늘 하는 일이어도, 늘 꼼꼼하게! 인천운항관리센터 운항관리자들의 신조입니다!

소통 개선과 갈등 해결을 위한

KOMSA 미래세대 대상 커뮤니케이션 교육

지난여름, 본사를 비롯해 전국 지사 및 운항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미래세대 직원들이 모여 최고의 단합력을 보여줬던, KOMSA 미래세대 소통화합 워크숍! 이번엔 'KOMSA 미래세대 대상 커뮤니케이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다. 더 열정적이고, 더 즐겁고, 더 새로웠던 part.2 현장으로 함께 가볼까.
글 최선주 / 사진 정우철 / 영상 최의민

즐겁게!



가보자고!



파이팅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6
저에게 다양한 메일이 오는데요.
회사의 발전에 대한 메일에는
답장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메일 보내주세요. 그리고
본·지사 또는 직렬 간 서로
비방하는 일은
절대로 없길 바랍니다.

99



우리가 바로 KOMSA 미래세대!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있었던 지난 11월 2일~3일.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참가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움츠러들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날씨의 요정은 KOMSA의 편에 섰다. 추위는 잦아들고 완연한 가을 날씨로 무리 없이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난여름 진행되었던 커뮤니케이션 교육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달라졌을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참석자가 배로 늘어났다는 것! 그래서 이번 커뮤니케이션 교육 첫 집결 장소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천안상록호텔 내 그랜드홀이 되었다.

이 단합력, 실화입니까?

상록홀에서 점심을 먹은 뒤, 본격적인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시작되었다. 팀별로 모여 인사를 나눈 뒤, 이틀간 팀을 이끌어야 할 팀장을 뽑는 시간을 가졌다. 선출된 팀장들이 인사를 하자, 팀원들은 저마다 팀장들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이제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제대로 즐길 시간. 파이팅 넘치는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 강당으로 모였다.

신나는 음악과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에 직원들은 덩달아 에너지 UP! 팀별로 조끼를 나눠 입는 것부터 점수가 시작된다는 사회자의 말에 세상에 둘도 없는 단합력을 보여줬다.

“서둘러!!!”, “100점이라!!!”, “저희요!! 저희가 먼저 입었어요!!” 사회자는 이들의 스피드와 함성에 놀랐는지 “열기가 정말 뜨겁네요! 점수는 골고루 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체육활동 언제나 즐거워

가벼운 댄스와 스트레칭으로 몸도 풀었으니 미래세대의 힘을 제대로 보여줄 차례다. 타이어당기기, 바퀴굴리기, 바나나보트, 버블씨름, 공튀기기, 강강술래, 고깔 쓰고 구슬 줍기 등 체력과 팀워크가 있어야만 우승할 수 있는 활동들이 연이어 진행되었다.

“파이팅!!!”, “노란팀, 가즈아!!!”, “빨간팀, 더!! 더!!!” 각 팀은 목이 터져라 응원했고, 한 종목에서 성과가 좋지 않았어도 “다음에 잘하면 된다”라며 “고생했다”고 서로를 다독였다.

가장 단합력이 돋보였던 활동은 바나나보트. 다수의 인원이 함께 박자를 맞춰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들 “하나, 둘” 구령을 맞추며 목적지까지 돌아오는 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체육활동의 최종 우승은 많은 종목에서 고득점을 한 노란팀! 노란팀은 우승이 발표되자 “와아아!!!”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다른 팀들은 승패를 떠나 체육활동을 즐겁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사장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요

방 배정이 끝나고 어느덧 해가 졌다. 직원들은 이사장의 가치체제 교육 시간을 기다리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긴장은 일순간에 사라지고, 웃음만이 감돌았다. 김준석 이사장이 준비한 소소한 선물에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기 때문.

김준석 이사장은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도 특히 직렬 간의 단합을 강조했다. “저에게 다양한 메일이 오는데요. 회사의 발전에 대한 메일에는 답장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메일 보내주세요. 그리고 본·지사 또는 직렬 간 절대 비방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김준석 이사장의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첫째 날이 저물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날 9시.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직원들은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다시 강당으로 모였다. 여기서는 마지막 팀워크를 불태우며 게임에 진심인 모습을 보였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정답을 맞추기 위해 구호를 외치고, 점수를 위해서라면 노래도 마다하지 않으며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푹 빠져들었다.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끝으로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모든 일정은 끝이 났다.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 동안 보여준 직원들의 열정과 끈기, 의지는 앞으로 KOMSA의 미래를 밝게 비출 것이다. 미래의 주역들이 이끌 ‘KOMSA’라는 배의 순항이 더욱 기대가 된다. 🌊



Mini interview



본사 성과혁신실 이나영 주임

커뮤니케이션 교육, 기대를 많이 했어요. 본·지사 간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해 주셔서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해지사 속초출장소 김상원 주임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참석했는데요. 선배, 동기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좋았고, 다음에 또 참석하게 된다면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해지사 파이팅!

안전하고 믿음직한 수학여행 뱃길, KOMSA 여객선 안심여행 서비스와 함께

아직도 세월호 사고 이후 형성된 '여객선을 이용한 수학여행은 불안하다'는 국민적 감정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침체된 수학여행 뱃길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기 위한 우리 공단의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기 위한 우리 공단의 역량을 집중하여 올해 하반기 새롭게 도입한 여객선 안심여행 서비스를 알아보고자 한다.
글 윤향정책임장용상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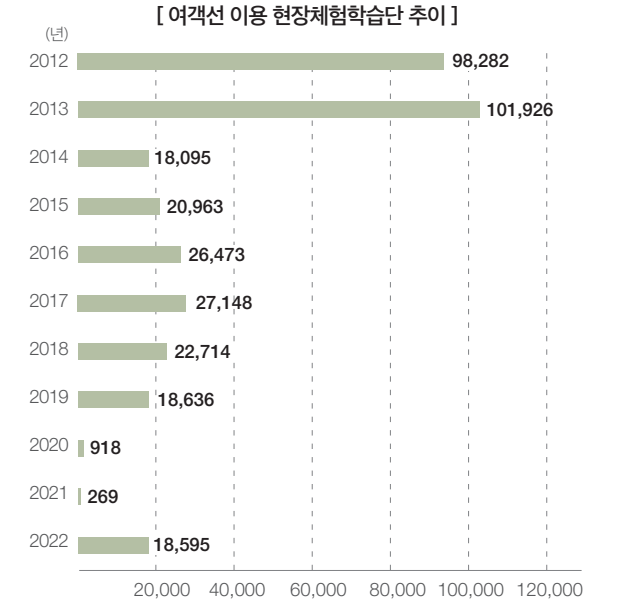


도입 배경

세월호 선박사고 여파 및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폭 줄어들었던 제주도 뱃길 수학여행이 올해(2023년)부터 한층 활발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단은 여객선을 이용한 수학여행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여객선 안심여행 서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어행업협회, 여객선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23년 하반기 신규 도입이 실현 되었습니다.



도입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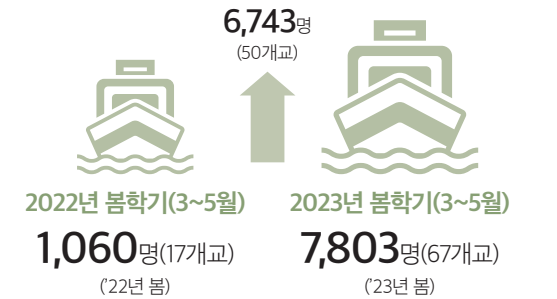
우리 공단의 여객선 안심여행 서비스 도입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월호 사고 이후 형성된 부정적 인식으로 여객선을 이용한 현장체험학습 감소가 유발되어 이에 대응한 내항여객선 이용 활성화 필요

둘째, 여객선을 이용한 현장체험학습 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안전정보 및 안전교육 제공 서비스 全無

셋째, 사회가치 확산 도모를 위하여 공단이 수행하는 상생협력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여객선사와의 상생 기회 마련

넷째,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



※ 이는 선사별 초·중·고교 단계 예약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 여기에는 수학여행 외에도 각종 현장체험학습 등이 포함



2023년 7~8월

도입 준비 / 유관기관 협업
교육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어행업협회, 여객선사



2023년 9~11월

서비스 신청 / 제공
순천금당고 최초시행 이후 총 6개교 서비스 제공



2023년 11월

수학여행 이후 만족도 조사
교사 등 인솔자 대상 설문조사 시행



도입 성과

'23년 하반기 도입 이후 총 6개 학교 728명을 대상으로 여객선 안심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서비스를 신청한 학교는 모두 여객선을 이용한 제주도 수학여행을 계획한 초·중·고등학교로 전남 목포시, 순천시, 장흥군 소재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였습니다.

공단에서 제공한 서비스는 안전교육, 안전정보, 출항 전 안전점검 참관, 선박 집중 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서비스 신청 학교의 선택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안전교육은 공단 본사 및 운항관리센터 소속 운항관리자가 수학여행 전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사전교육과 수학여행에 동행해 선상 안전교육을 제공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되었고 선내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여객선 안전장비 사용법, VR을 이용한 가상현실 체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안전정보는 선박검사증서, 해양사고·선원교육 이력, 선박보험증권 등 수학여행에 이용하는 여객선의 전반적인 안전정보를 학교에서 사전에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방식과 여객선 이용과 관련된 기초안전수칙 등의 안전동영상을 SMS 서비스로 제공받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선박 집중 모니터링은 수학여행단이 여객선에 승선하여 항해하는 중 공단 본사 상황센터 및 관할지역 운항관리센터에서 VMS(Vessel

“'23년 하반기 도입 이후 총 6개 학교 728명을 대상으로 여객선 안심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서비스를 신청한 학교는 모두 여객선을 이용한 제주도 수학여행을 계획한 초·중·고등학교였습니다.”



Monitoring System)를 활용한 집중 감시를 제공해 비상시 즉각적인 상황전파 및 구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출항 전 안전점검 참관은 수학여행에 이용하는 여객선 승선 시 공단 운항관리자의 안전점검을 함께해 여객선이 충분히 안전한 상태에서 출항함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추진한 여객선 안심여행 서비스는 학교 및 학생 이용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다수 국민에게 아직은 생소한 우리 공단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가 홍보되었고 여객선을 이용하는 수학여행단의 안전의식 전파 및 해양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수학여행단에 꼭 필요한 대국민 서비스가 될 것이며, 나아가 '여객선은 안전하고 믿음직하다'는 대국민 인식 형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객선 안심여행 서비스는 세월호 사고 이후 형성된 '여객선을 이용한 수학여행은 아직 불안하다'는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나아가 여객선을 이용하는 수학여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형성된 '여객선을 이용한 수학여행은 아직 불안하다'는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나아가 여객선을 이용하는 수학여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 센터	학교	대상자(명)			제공 서비스(회)									
		학생	인솔	합계	안전정보				안전교육		현장확인	선박 집중 모니터링	SMS 안전정보	
					검사증서	해양사고	선박보험	선원교육	사전방문	선상동행				
목포	목포 연산초	86	5	91	-	-	○	-	○	-	-	○	-	
	목포 중앙초	13	4	17	○	○	○	○	○	-	-	○	○	
	목포 대성초	71	6	77	○	○	○	○	-	○	○	○	○	
	목포 하당중	139	10	149	-	-	-	-	○	-	-	○	-	
여수·고흥	순천 금당고	239	15	254	-	-	-	-	○	-	-	○	-	
완도	장흥 장흥고	130	10	140	-	-	-	-	○	-	-	○	-	
실적		6	678	50	728	2	2	3	2	5	1	1	6	2

[신청방법]

여객선 안심여행 서비스는 여객선을 이용한 수학여행을 계획한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공단의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선별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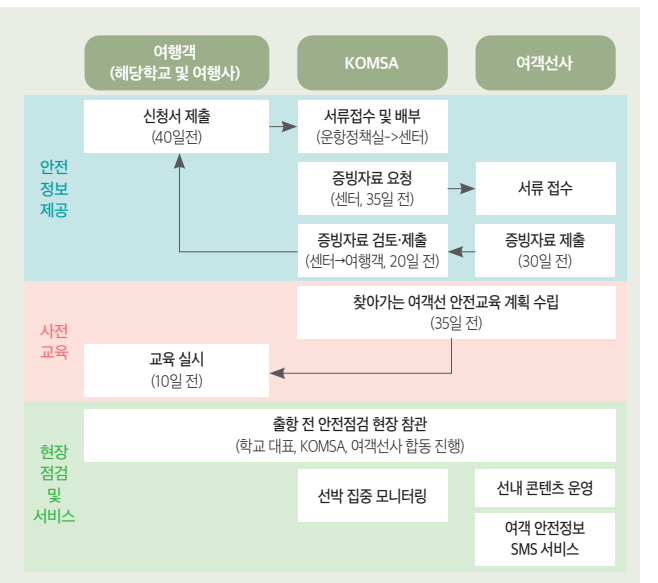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www.komsa.or.kr> → 참여 → 여객선 안심여행 서비스

[신청서 제출]

- 공문서(전자문서 경로지정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e-mail(yongsang88@koms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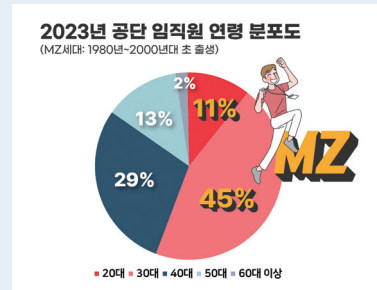
[앞으로의 계획]

'24년에는 전담권 학교 위주의 서비스 제공 실적을 타지역으로 적극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에게 더 넓어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NEWS

Winter



1

MZ 사원 위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 출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일명 '엠제트(MZ) 세대(1980년~2000년대 초 출생)'로 불리는 2030세대 직원들을 위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소통 플랫폼 명칭은 역동적인 2030세대의 열린 소통 공간이라는 의미의 '다이나믹 엠제트(Dynamic MZ, 약칭 DMZ) 미래 플랫폼 3.0(이하 DMZ 3.0)'이다. 소통 수단으로는 비대면, 디지털 문화에 친숙한 세대임을 고려해 포털사이트의 오픈채팅방, 문서관리 온라인 소프트웨어 등이 주로 활용된다. 공단의 2030세대 온라인 소통 플랫폼 'DMZ 3.0'은 이렇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을 고려해, 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업무 현장에 실현하고 조직문화를 변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2

우리 선박 관리 서비스 개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선박 소유자 등이 선박검사와 과거 운항정보, 사고 이력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선박 관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공단이 그간 축적한 선박검사 및 운항 이력 외에도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 관계기관의 무선국 검사와 해양사고 데이터 등을 통합해 이뤄졌다.

선박 소유자 등은 '우리 선박 관리 서비스'를 통해 선박 진수일·총 톤수·길이·승무정원·항해구역 등 선박 제원 정보는 물론, 엔진·발전기 등 선박 주요 설비가 지간편하게 모아 볼 수 있다.



3

전문기술인력 양성 협력으로 선박검사품질 높인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한국폴리텍대학교와 지난 11월 28일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에서 해양교통안전 분야 산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준석 공단 이사장과 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 등 20여 명이 참석해 해양교통안전 분야 기술인력 교육과 재직자 전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먼저 친환경 선박 소재인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선박 용접 기술 등 선박검사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모은다. 단기적으로는 공단의 HDPE 선박 용접 기술교육에 폴리텍대학 전문 교수진이 참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폴리텍대학에 친환경 소형어선 특화 과정을 신설해 이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KOMSA NET WORK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바다를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해양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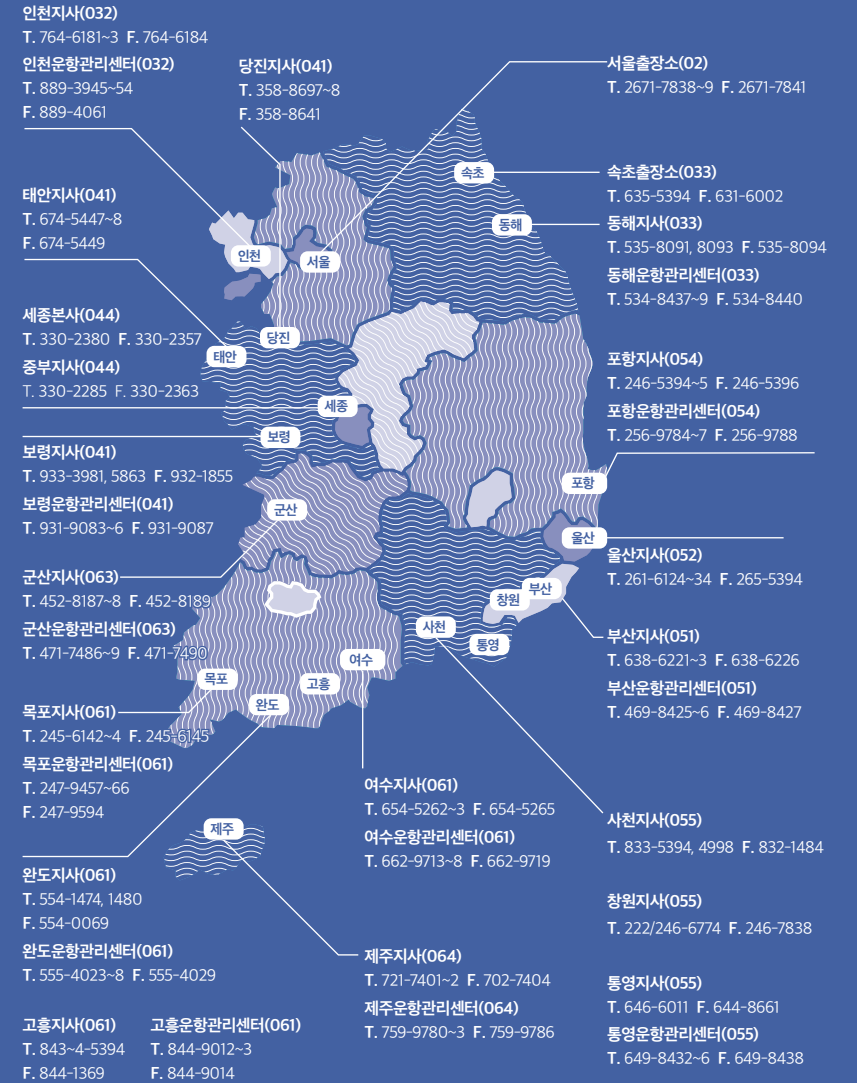
세종 본사 안내

044) 330-이사장	T.2200~1	F.2352
기획조정실	T.2210	F.2353
성과혁신실	T.2410	F.2466
경영본부장	T.2203	F.2352
인재개발실	T.2220	F.2354
운영지원실	T.2230	F.2357
정보보안실	T.2500	F.2355
교통연구본부장	T.2205	F.2352
교통정책실	T.2300	F.2309
해양안전실	T.2340	F.2339
해양환경실	T.2250	F.2365
안전연구실	T.2450	F.2461
검사본부장	T.2204	F.2352
검사관리실	T.2260	F.2358
검사기준실	T.2270	F.2359
운항본부장	T.2206	F.2352
운항정책실	T.2381	F.2379
운항상황센터	T.2670	F.2389
감사실	T.2320	F.2364
노동조합	T.2360	F.2367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고객의 현장 애로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검사제도 관련 불편 사항이나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검사기준실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27(아름동)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실
TEL. 044-330-2270~9
FAX. 044-330-2359
E-mail. it@komsa.or.kr

지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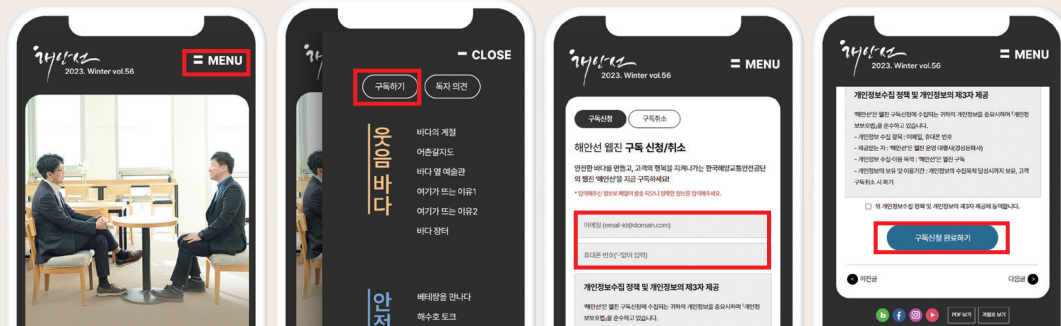
본사로 오시는 길



구독하고 선물 받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해안선>
웹진에 접속하셔서 <해안선>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참여 방법 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웹진을 접속한다. <https://komsa-webzine.co.kr>



- ② 웹진 메인페이지 우측 상단의 'MENU' 버튼을 누른다.
- ③ 목차 부분의 상단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누른다.
- ④ 개인 이메일과 연락처를 입력한 후 정보 제공에 동의하기를 누른다.
- ⑤ 구독신청 완료하기 누르면 끝!

참여 기간 2024년 1월 19일(금)까지

당첨 인원 10명(랜덤 추첨)

당첨 선물 GS편의점 상품권(1만 원)

선물 발송 이벤트 마감 후 일주일 내 당첨자 개별 발송(*미당첨자는 별도 공지 없습니다)

<해안선> 보고 독자 의견 남겨주세요!

매호 발행되는 <해안선>을 보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더 나은 <해안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QR코드를 스캔해서
독자 의견을 남겨주세요.

어선을 사고팔 때 필요한 정보는 어선거래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www.어선거래.kr

주요 제공 정보

어선매물정보
어선명, 선적항*,
주기관, 총 톤수, 선질 등

* 지역별로 어선 매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어선검사정보
엔진개방정보*,
최종검사내역 등

* 엔진 종류, 마력,
개방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류	구분	제조사
선박용디젤기관	주기관	동아마린공업
제조번호	마력(PS)	개방일자
RG6135G008568	497	2017-02-17

어선허가정보
연안복합, 연안자망 등
허가권 종류

중개업체 정보
업체 소재지, 중개업자 정보,
개인/법인 여부 등



어선거래시스템은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제도 정착을 위해
어선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거래는 편리하게, 과정은 투명하게! 어선거래시스템

